

“삼독 끊고 바른 깨달음 모범을”



지도자의 덕목

2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원로회의는 종단 최고 어른인 증정스님을 새롭게 추대했다. 증정스님은 살아있는 부처님의 대행지임과 동시에 불자들의 정신적인 지도자다. 지난해 말 종단사태로 황량해진 불자와 국민들이 새 증정스님에게 거는 기대는 그 어느때보다도 크다. 비단 불교계뿐 아니라 나라, 한 단체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도 지도자들의 역할은 더없이 중요하다. 21세기를 앞둔 시점에서 새 시대를 이끌어 갈 모든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은 과연 무엇인가. 부처님말씀을 통해 지도자의 덕목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고 해서 여기에 귀 기울이게 되면 결코 참된 현자를 얻을 수 없다. 참된 현자를 얻으려면 그 사람됨을 바로 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세상의 평판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현자는 아니다. 또한 세상의 평판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현자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진짜이면서도 비난받을 수 있고, 가짜이면서도 칭찬을 듣기도 하므로, 잘 살펴서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자를 등용하지 않는 것은 나라의 손실이고, 어리석은 자를 채용하는 것은 나라의 통탄할 일이다.

■ 비구들이여, 종교인은 지혜로운 목자와 같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종교인은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를 잘 관찰하지도 않고 건너는 장사나 방법도 잘 모른다. 그들을 믿고 강을 건너려 하다가는 오히려 도하방법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바른 지혜를 가진 종교인은 이쪽 저쪽을 잘 살펴 건널 곳과 물살의 깊이를 헤아리고 적절한 도하방법도 알기 때문이다. <사분율>

■ 왕은 다리와 같이 만민을 제도해야 하고, 저울처럼 진소(親疎)를 평등히 해야 하며, 길과 같이 성현의 자취를 어기지 않아야 한다. 해와 같이 온 세상을 두루 비쳐 주어야 하고, 부모처럼 백성을 사랑해야 하고, 하늘처럼 일체를 덮어 주어야 하며, 땅처럼 만물을 길러야 하며, 물처럼 사방을 은택하게 해야 하고, 과거의 전통성왕처럼 열가지 선행으로 중생을 교화해야 한다. <잡보장경>

■ 국가의 위기나 멸망의 원인은 합부로 시류에 영합하려는 데에 있다. 시류의 평판이 좋

고 해서 여기에 귀 기울이게 되면 결코 참된 현자를 얻을 수 없다. 참된 현자를 얻으려면 그 사람됨을 바로 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세상의 평판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현자는 아니다. 또한 세상의 평판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현자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진짜이면서도 비난받을 수 있고, 가짜이면서도 칭찬을 듣기도 하므로, 잘 살펴서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자를 등용하지 않는 것은 나라의 손실이고, 어리석은 자를 채용하는 것은 나라의 통탄할 일이다.

■ 관리들은 고위직이나 하위직을 막론하고 모두 법에 따라 업무를 바르게 수행하고 법밖의 쉬운 자들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법에 의한 보호, 법에 의한 처리, 법에 의해 안락을 주는 것, 법에 의해 언어와 행동을 삼가하는 것, 이것이 관리가 준수해야 할 규칙이기 때문이다. <석주조직>

고 해서 여기에 귀 기울이게 되면 결코 참된 현자를 얻을 수 없다. 참된 현자를 얻으려면 그 사람됨을 바로 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세상의 평판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현자는 아니다. 또한 세상의 평판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현자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진짜이면서도 비난받을 수 있고, 가짜이면서도 칭찬을 듣기도 하므로, 잘 살펴서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자를 등용하지 않는 것은 나라의 손실이고, 어리석은 자를 채용하는 것은 나라의 통탄할 일이다.

열린마당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중앙승가대가 14일로 개교 20주년을 맞는다. 79년 중앙승가대학이 발족된 후, 96년 4년제 정규대학으로 승격된 현대적 승가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온 중앙승가대는 그동안 불교, 사회복지, 포교사회, 역경 등의 학과를 통해 96년 2월 까지 8백3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현재 김포학사로의 이전을 앞두고 있다. 중앙승가대 김포학사는 80% 가까운 공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김포학사 완공과 이전을 앞두고 공사비 3백60억원 가운데 이후 시공업체인 총림건설에 지급해

야 할 2백46억원의 공사대금 마련과 완공 후 年 30억으로 추정되는 운영비 조달 등 예산수급 문제가 가장 큰 난제로 대두되고 있다. 김포학사는 공사계획 단계부터 이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지적도 있고 있다. 최근 조계종 중앙총회에서는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대책 특별'을 구성하는 등 김포학사 이전을 앞두고 재원마련과 활용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에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이전과 활용 방안에 대해 교계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원택 (조계종 총무부장)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건립과 이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 마련이다. 현재로서는 완공까지 3백억에 가까운 건립비용을 지원할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완공후의 年 30억이 넘는 학사운영비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종단의 정책사업으로 시작한 만큼 원만한 회향을 거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책사업 원만회향 뜻 모아야”

139회 총회에서 총회위원과 교육원 관계자, 중앙승가대 관계자로 특위를 구성한 것은 이같은 당면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공식화되지 못한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을 뿐이다. 재원마련과 관련한 의견과 김포학사 이전과 활용에 대한 각각의 의견도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시점에서 대두된 의견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앙승가대 문제는 총회 특위의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방향을 가다듬은 후 다양한 해결방안과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양보해야 할 부분은 양보하고, 감수해야 할 것은 감수하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항적 (조계종 총회위원)

중앙승가대 김포학사에 대한 논의는 단지 이전이나 활용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종단 승가교육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놓고 논의를 전개해야 타당하다. 김포학사는 대단히 방대한 규모다. 완공까지 3백6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한다. 이 돈을 지급하지 못하면 학사는 시공업체에 넘어간다.



“행자교육장이나 종합대학으로”

이후 운영에도 최소 年 30억원이 들어가야 한다는 분석이다. 총회와 집행부, 중앙승가대 당사자들이 함께 '중앙승가대 운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이같은 배경 때문이다. 특위는 당사자들의 이해에 얽매지 말아야 한다. 아픔을 감수해야 한다. 예정대로 김포학사를 완공하되 기초교육기관(행자상설교육장)으로 활용하

지, 아니면 종합대학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행자교육기관으로 활용키 위해서는 행자교육 기간을 4년 정도로 연장하는 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승가학과와 함께 미술 건축 사원경영 등 불교 관련 전문강좌를 개설한 종합대학으로의 운영도 가능하다. 방학 중에는 스님들의 각종 연수와 신도교육장으로서의 활용도 모색해야 한다.

원종 (중앙승가대 기획실장)

김포학사는 종단차원의 명실상부한 승가교육도량을 만들자는 목적 아래 종단 최대불사로 진행돼 왔다. 김포학사 이전을 앞두고, 재원마련과 활용에 대해 현재 학교자체적으로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중이다. 중앙승가대가 종단 교육기관으로 확고히 자리잡기 위해 종단과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 종단과의 협의속에서 여러가



“안암학사 대학원 운영 검토 필요”

지 안을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김포학사로 이전하게 되면 안암동학사에서의 1년 전체 예산인 18억원보다 훨씬 많은 30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현 안암학사를 대학원이나 지도자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벌어들이 계획도 갖고 있다. 또한 김포학사도 방학과 주말을 적절히 활용

해 교육과 문화행사의 장으로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정인 미달도 법적 토대를 갖추고, 위상을 더해 나간다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 또한 그동안 실추된 이미지를 재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학교홍보와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박선영 (동국대교수·교육학과)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이전문제는 재원조달이 가장 큰 관건이다. 그러나 현 종단 승가교육체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중요한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종단의 승가교육체계를 살펴보면 중앙승가대학, 동국대불교, 강원, 기초선원 등 네 곳의 기본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중복교육 등의 문제를 표출하고 있다. 특히 4년제 정규대학인 동국대나 중앙승가대



“기본의무교육기관 지정 마땅”

를 졸업하지 않고서는 해외유학도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앙승가대를 종단의 단일 기본의무교육기관으로 지정해 모든 출가자는 1차적으로 중앙승가대를 졸업함으로써 승려가 되는 기본자격을 갖추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강원이나 학림, 선원 등은 대학원과정으로 승격시켜 각 교육기관마다 교육내용을 특

성화해서, 자신이 원하는 교육, 자신에게 맞는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현재 매년 줄어들고 있는 학인정원 문제도 교육체계확립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포학사 이전을 앞두고 중앙승가대 자체의 재원마련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96년부터 98년까지 실시해 온 '부처님오신날 군장병 위문품 보내기'가 종단과 불자들의 무관심, 군불교진흥회의 내분 등으로 축소될 위기에 놓여있다.

군불교진흥회는 지난 96, 97년 조계종 지원금 1천만원과 자체 후원금 등으로 각각 1만2천여개, 1만7천여개의 위문품을 보냈으나, 98년에는 종단 지원금이 끊겨 8천여개로 축소됐다. 더욱이 올해는 군불교진흥회의 재정이 바닥난데다 회장의 임기가 지난 2월28일자로 만료된후 회장 선출을 둘러싼 이 사의의 분열로 봉축위문품 보내기 운동이 중단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진흥회가 보낸 위문품은 단주 1개, 과자류 5종, 포교용 소책자 1권 등 약 2천5백원 상당. 한해 평균 소요된 예산은 3~4천만원 정도. 현재 군불자의 수는, 15만 명에 이르지만 예산부족으로 10분의 1 정도인 1만5천여명에게만 위문품을 보내

다. 포교 형용어장인 군포교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다.

개신교 군봉화위원회의 1년 예산이 70억원이며, 천주교 및 성공회 군포교구의 1년 예산은 40억원. 하지만 조계종이 군포교에 지원하는 1년 예산은 5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으로 군포교를 포기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초라한 봉축 軍위문품

있다. 올해는 그나마도 힘든 형편. 진흥회는 지난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아들과 손자를 군에 보낸 불자들의 도움으로 절반의 예산을 충당하기도 했다(지정기탁도 가능). 올해는 군포교 관계자들의 비난여론이 높아 조계종은 뒤늦게 1천여만원에 불과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

진흥회 최우진 부회장은 “불자들이 술 한잔 안 마시는 돈으로 몇 십명의 젊은 장병분자들을 만들 수 있다”면서 “스님들도 사찰에 젊은 불자들이 적다고 한탄만하지 말고 미래 불교를 일군다는 마음으로 군불자 공양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02)749-5135 (jgkim@buddhaphia.com)



김재경 (취재 1부 기자)

우롱큰스님 법문집

불교신행의 주춧돌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합니까?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롱큰스님의 불교신행 지침서. 신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 I. 지성(至誠)으로 살자
- II. 불자의 살림살이
- III. 불자의 축원
- IV. 불자의 기도
- V. 일체고악을 벗어나는 길
- VI. 불교신행의 주춧돌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알기쉬운 불서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찰 초입(初入口)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四物),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신국판 / 7,000원

관음신앙·관음기도법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필독서

이 책에는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위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B6 / 값 3,500원

예불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많은 불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불문 속에 우리나라 불교신앙의 진수가 담뿍 담겨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예불문 속에 깃들여 있는 의미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이요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궁금해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이런저런 궁금증들..... 이 땅에 정착된 불교신행의 진수를 이 한 권의 책 속에 모두 담았습니다.

- I. 새벽예불
- II. 오분향례
- III. 부처님이시여, 크나큰 진리여
- IV. 거룩한 사대보살
- V. 영산회상의 제자들
- VI. 불법은 승보가 호지한다
- VII. 자타일시상불도

신국판 / 5,000원